

“상표 취소 때문에 망했다”

특허청이 해준 상표등록이 4년 만에 취소되는 바람에 상표권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던 중소기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상표 개발업체인 S사는 2001년 10월 자사가 개발한 A상표에 대해 상표출원 및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의류업체인 B사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는 이태리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특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05년 2월 S사는 골프화 등을 생산하는 스포츠 제화업체인 P사와 A상표에 대해 3년간 상표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P사는 A상표를 부착한 제품 시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B사가 또 다시 S사를 상대로 “A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특허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이면

중소, 국가 상대 소송

서 상표 등록이 취소됐다.

이어 B사가 A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이 받아들여면서 P사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P사에 붙어 닦친 시련은 가혹했다.

상표등록 무효로 당장 제조한 4만 켤레 가까운 신발을 폐기, 직원들도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양모(여) 사장은 “제품 폐기로 월급 줄 형편이 못되자 15명이던 직원들이 모두 떠나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등록만 믿고 은행 대출과 사채까지 끌어다 회사를 세웠는데 특허청의 탁상행정으로 하루 아침에 망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대출금은 지난해 겨우 상환했지만 사채는 현재도 갚아나가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빛에 시달려 지병으로 숨진 남편 치료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된다”며 특허청의 탁상행정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이 상표등록 심사를 하면서 B사 상표의 주지성(널리 알려진 상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1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지만 소송 비용 마련이 어려워 우선 3억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자나 상표사용권자가 상표등록 무효 처분에 불복, 특허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민법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S사 상표 등록 및 무효 처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성근 기자

짝퉁 부자 떠나자 명품 매출 “뚝”

경기후퇴로 인해 명품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일부 명품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할인하며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매출은 결국 감소했다.

보석업체 티파니가 최근 발표한 매출실적은 명품업체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티파니는 지난해 11~12월

티파니 연말 매출 21% 급감

부유층 동경 고객들 발길 끊겨

매출액이 6억874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말은 통상 명품 매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은 올 한해 매출 역시 시원치 않을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티파니는 올해 매출 목표를 29억2000만달러에서 28억5000만달러로 낮춰 잡았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

는 티파니의 매출 감소가 짝퉁 부유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부유층은 경기 상 관없이 명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부유층을 동경하면서 빠듯한 주머니를 털어 명품을 구입하던 일부 소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실제로 짝퉁 부유층은 티파니의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티파니는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후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들자 부유층을 동경해 온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이는 티파니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마켓워치는 “(가짜 부유층이 떠남에 따라) 진짜 부유층은 다시 한번 티파니 점원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며 “아마도 수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재진기자 flykij@ktnews.com

중국, ‘짝퉁 기승’에 몸살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춘절(설) 등 시류에 편승한 위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방조보 등 중국 언론들은 최근 중국 최고액권인 100위안(약 2만원)짜리 위조지폐가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15개 성(省)과 시에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100위안짜리 위조지폐는 일련번호가 ‘HD’와 ‘HB’, ‘FA’ 등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일부 위조지폐 감별기도 구별 못할 정도로 정교하다. 이들 위조지폐는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판매 광고까지 하고 있어 막대

한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초 광둥성의 한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50위안짜리 위조지폐도 발견됐다.

23억명 이동이 예상된 춘절 귀향객을 상대로 한 위조 열차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로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위조 열차표를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차표를 구입한 뒤 귀향을 위해 기차역으로 갔다가 위조 열차표로 확인돼 열차를 타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광저우 철도당국은 위조 열차표 등을 판매한 1499명을 체

포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과 내수진작 차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가짜 상품도 판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농민이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살 경우 구매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충칭에서는 농민들이 구입한 유명 TV 34대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산둥성 린이시 농촌 전문 가전제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상당수 제품들도 모두 위조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상열 기자 syjeon@ktnews.com

짝퉁 밍크코트 판매 의류업자 입건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국산 일반 밍크코트에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매한 의류판매업자 A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0만

원 상당의 국산 밍크코트 50벌에 해외 명품상표를 붙인 뒤 인터넷을 통해 “세일 상품”으로 속여 1벌 당 7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진기자 flykij@ktnews.com

가짜메모리카드 대량 유포

“중국산 짝퉁 어디까지?”

최근 인터넷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메모리카드가 중국산가짜 메모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10개 중에 8, 9개는 가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세관 사이버 조사팀은 “최근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중 일부가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어져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지나치게 저렴한 메모리 카드는 불법으로 개조를 한 칩과 메모리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인천항

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되는 것으로 보고 중국 세관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상 판매가 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중국산 짝퉁 메모리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가의 불량 메모리 카드를 구입했을 경우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AS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불량 제품들이 겉으로 봐서는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정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박상혁 기자

옛 5000원권 위폐 주의

지난해 위조 지폐의 절반 이상이 5000원권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위조 지폐는 줄었음에도 유독 5000원권 ‘짝퉁’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총 9251장이었다. 2007년 2620장에 비해 39.5%나 늘었다. 이 중 94%(8667장)가 옛 5000원권이었다.

한은측은 “신·구 화폐 교체 과정에서 5000원권 위조 지폐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는 총 1만 5448장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87만 7000원어치다.

전년보다 230장(1.5%) 감소했다. 만원권(5825장)과 1000원권(372장)도 같은 기간 각각 2613장, 237장 줄었다. 위조 지폐는 2006년 2만 1939장을 기록한 이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LG디스플레이, 대기업을 특허분쟁서 승리

LG디스플레이가 2006년부터 4년 가까이 계속된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LG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이 고용했던 일본 인연연구원D씨와 일본 오바야시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에 LG디스플레이와 피고들 사이에 맺어진 양도계약 조항에 D씨와 오바야시사가 LG디스플레이가 정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피고들은 각각 출원된 특허에 대해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절차, 특허권이전등록절차 등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